


영암군 보조금(농업 · 축제예산) 현황 Q&A

- 1 영암군 재정 현황
- 2 영암군 보조금 현황
- 3 재정 유사 지자체와 농업 · 문화관광 예산 비교
- 4 일부단체 주장 농업예산 삭감 여부
- 5 2024년 영암군 축제 예산 현황
- 6 2023년 결산기준 영암군 순세계잉여금
- 7 영암군 보조금 혁신 방향

	<h2 style="text-align: center;">영암군 보조금(농업·축제예산) 현황 Q&A</h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p>기획감사과장 양희곤(2301) / 예산팀장 박한글(2211)</p> <p>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2208) / 관광정책팀장 최수진(2253)</p> <p>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2410) / 농정기획팀장 김문진(2373)</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2024. 7.</p> <p>기획감사과 관광스포츠과 친환경농업과</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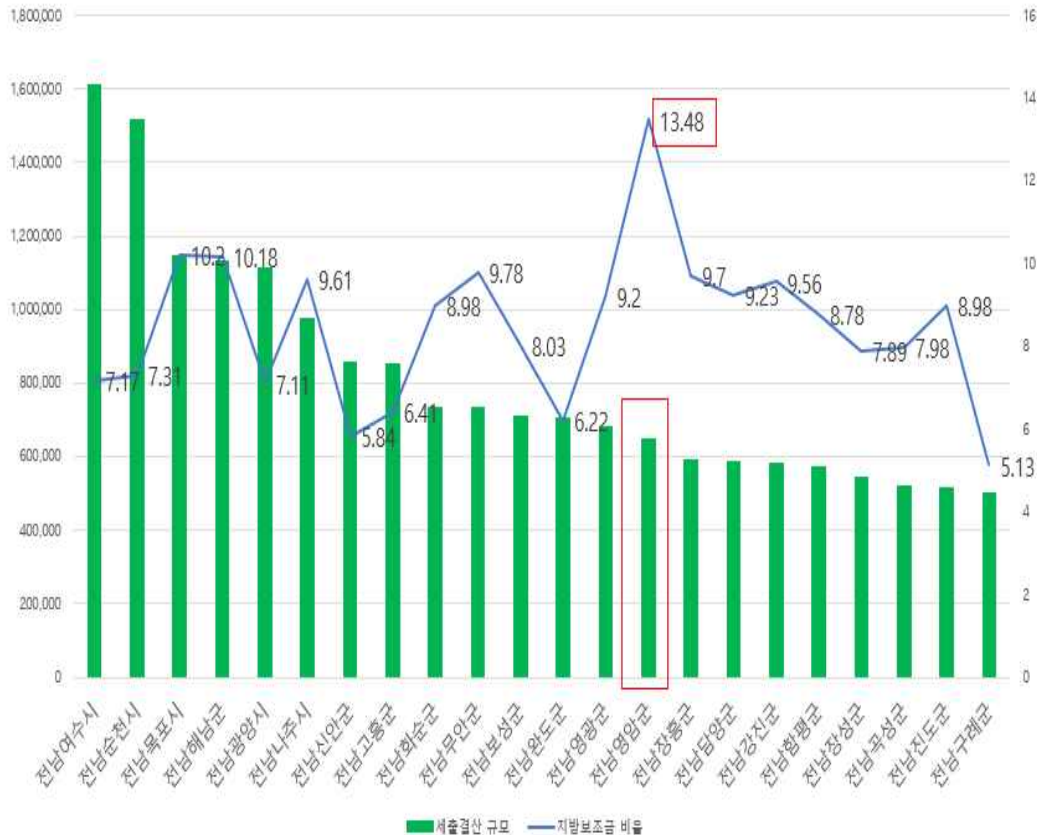
Q. 영암군이 재정 위기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전 지자체가 유례없는 긴축재정 중이며, 영암군도 매년 교부되는 정부 교부세가 최근 2년간 약 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 2년간 교부세 감소액 834억원, 보조금 절감 노력 페널티 147억원

Q. 정부의 교부세 예산 감액이 영암군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영암군의 **보조금 비율은 13.48%로 전남에서 1등, 전국 군 단위(82개)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 평균 8.5%를 크게 웃돌고 있어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2022년 결산기준, 그림 1 참고)

<그림1> 2022년 결산기준 전라남도 시·군 지방보조금 비율(단위 : 백만원, %)



Q. 영암군 농업예산을 인근 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A.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남 내 5개 군과 비교하여 보면 영암군의 농업예산은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표1 참고)

정부의 교부세 대폭 삭감으로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긴축재정 상황이며 영암군도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2022년 대비 신규사업(104건, 185억원)과 기존 사업 중 증액(43건, 28억원)을 포함하여 **총 148건의 사업에 213억원을 증액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 '차조생산단지 생산비 저감(멀칭비닐) 48백만원',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350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120백만원', '영암쌀 소비촉진 지원 50백만원', '병해충방제 지원 60백만원 증액',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30백만원 증액',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70백만원 증액', 가루쌀 생산단지 장비지원 및 교육 482백만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110백만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127백만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05백만원 등.

<표1> 전남내 재정 유사 지자체 2023년 최종예산 비교(단위 : 명, 억원, %)

구 분	인구수	예산규모	문화관광	농업농촌	농민수당
영암군	52,350	8,003	492 (6.15%)	1,937 (24.2%)	64 (0.8%)
해남군	64,575	10,890	885 (8.13%)	2,853 (26.2%)	93 (0.9%)
담양군	45,373	5,854	342 (5.85%)	1,271 (21.7%)	49 (0.8%)
화순군	61,254	8,325	457 (5.49%)	1,353 (16.3%)	55 (0.7%)
장성군	42,543	5,785	341 (5.89%)	945 (16.3%)	51 (0.9%)

Q. 영암군의 농업정책 방향은?

A. 영암군은 계속되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기후 위기, 농가고령화 극복을 위해 과거 생산중심의 증산정책에서 벗어나 **농가소득중심의 농정대전환**을 계획하고 시행중입니다.

- 고부가가치 전략작물 육성,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농정,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농업 육성, 고령농·소농 노동력 절감 지원 등을 모토로 **융복합산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일부 농민단체에서 농업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일부 농민단체 주장내용		영암군 확인내용
보조지원사업명	삭감내용	
무 기 질 비 료	13.5억원	러·우 전쟁으로 국내 비룻값이 상승함에 따라 <u>최근 3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u> 하고 있음. 올해 정부 세수감소로 <u>정부보조금이 줄어서 감액</u> 되었음
맞춤형 농자재	2.7억원	동일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과 군비보조사업으로 각각 시행되어, <u>효율적인 사업</u> 을 위해 <u>통합 추진</u> 중에 있음
조사료 배합기	1.1억원	
벼 재배농가 톤백	0.9억원	벼 출하방식과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u>종합적으로 검토</u> 하여 <u>사업 지속여부를 결정</u> 할 계획임
저품위 무화과	0.4억원	저품위 무화과 시장 격리 지원사업은 올해 <u>무상처리로 전환</u> 하여 대불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원료로 활용할 예정임. 해당 농가에는 “ <u>병해충방제, 백색부직포 봉지,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u> ”으로 <u>대체 지원</u> 중에 있음.
대봉감 병해충 약제	0.5억원	<u>정부 보조금 감소</u> 에 따라 부득이하게 100% 지원에서 <u>자부담 50% 부담으로 변경 추진</u> 중임

Q. 영암군의 관광(축제)정책의 방향은?

A. 영암군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소비 촉진을 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축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이 지역내 순환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023년 순세계잉여금을 농업보조금에 쓰지 않은 이유는?

A.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최종 결산 잔여금(세입-세출)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결산 잔여금은 남는 예산이 아니라 초과 수납 세입과 사업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영암군은 202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 따라 2024년 세출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붙임 1 영암군 재정 현황

- 최근 2년 사이 영암군 예산이 980억 넘게 줄었습니다.
- 정부 긴축재정에 따라 2023~2024년 지방교부세가 834억원 이상 줄었고, 같은 시기 지방보조금 페널티도 147억원이 넘습니다. 이 페널티는 민선 7기에 영암군 보조금 증가에 따른 페널티를 민선 8기에 받은 불이익입니다. 지난 2년 사이에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든 셈입니다.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계	285,125	320,634	368,570	292,198	
보 통 교부세	266,425	287,739	341,736	258,072	
부동산교부세	18,700	32,895	26,834	34,126	
전년대비증감	감 35,509 (감 12.1%)	감 47,936 (감 13.9%)	증 76,372 (증 26.1%)	-	

최근 3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효율화 현황(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2024년
지방보조금 페널티	3,421	3,058	11,671

붙임 2

영암군 보조금 현황

○ 세출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 넘게 올랐습니다.

- 2022년 기준 전남 시·군 평균이 8.5% 선이고, 영암군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전국 군 단위에서는 2위이고, 재정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영암군 살림을 한 가정에 비유하자면, 월급(교부금)은 꾸준히 줄고 벌금까지 늘고 있는데, 씬씀이(보조금)는 줄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전라남도 시·군 지방보조금 비율(단위 : 백만원, %)



영암군과 비슷한 자치단체 최근 5년 지방보조금 비율(단위 : %)



붙임 3

재정 유사 지자체와 농업·문화관광예산 비교

- 영암군과 인구나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남내 5개 재정 유사 군을 비교 해도 농업 및 문화관광 예산 비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남내 재정 유사 지자체 2023년 최종예산 비교(단위 : 명, 억원, %)

구 분	인구수	예산규모	문화관광	농업농촌	농민수당
영암군	52,350	8,003	492 (6.15%)	1,937 (24.2%)	64 (0.8%)
해남군	64,575	10,890	885 (8.13%)	2,853 (26.2%)	93 (0.9%)
담양군	45,373	5,854	342 (5.85%)	1,271 (21.7%)	49 (0.8%)
화순군	61,254	8,325	457 (5.49%)	1,353 (16.3%)	55 (0.7%)
장성군	42,543	5,785	341 (5.89%)	945 (16.3%)	51 (0.9%)

붙임 4

일부단체 주장 농업예산 삭감 여부

- 비료가격 인상 지원사업

-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22~24년 3년간 한시적 국비사업으로 농림부 예산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여 예산과 사업량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상반기분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농림부 예산이 확정되었고 영암군만의 예산감소가 아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감소하였습니다.

-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국비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농가에게 지속 안내 및 월간영암(구 반상회보)을 통하여도 홍보한 사항입니다.

○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사업

-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사업은 벼 출하시 사용되는 톤백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물 수매 확대 등 출하 방식 및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 국비사업인 축산ICT 지원사업에 조사료 배합기가 해당되어 국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 또한 전남 시·군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통합 유도 추진중입니다.

○ 저품위 무화과 수매 지원사업

- 4천만원 삭감된 사업은 ‘저품위과(배) 수매 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저품위 무화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 금년부터 신청에 따라 병해충 방제, 기찬충이망(백색부직포 봉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으로 대체 추진합니다. 저품위 무화과는 무상처리로 전환하여 8. 5.부터 15일간 대불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원료로 활용됩니다.

※ 병해충방제사업 확대지원(기존 300평 기준 20,000원 → 현행 40,000원)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가격하락시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대붕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사업

- 실제 감액된 금액은 49,232천원이며, 정부 보조금 감소에 따라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붙임 5 2024년 영암군 축제 현황

○ 특정단체가 유포하고 있는 축제 예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전남내 재정 유사 지자체 비교(단위 : 명, 억원, %)

구 분	예산규모	문화 및 관광	비 고
영암군	6,953	487 (7.01%)	
해남군	10,463	835 (7.98%)	
담양군	5,401	294 (5.44%)	
장성군	5,837	330 (5.66%)	

위의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암군이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남내 재정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세출예산규모 대비 문화관광 예산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습니다.

■ 영암군, 2024년 축제예산은

○ 왕인문화축제 사업 : 16억 2천 5백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에 지정되어 국비 보조금 3천 6백만원과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3천만원, 그리고 군비 15억 5천 9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 2024 왕인문화축제는 축제 권역을 상대포까지 확장하면서 왕인박사 테마 퍼레이드, 월인천강, 낙화유수 등 야간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였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통통제,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으로 작년 대비 약 6억원 증가 하였으며 16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 방문객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7점 만점에 5.19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존의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 문제 개선, 다회용기 사용으로 축제장 내 쓰레기가 현저히 감소해 ESG를 실천한 모범적인 축제로 평가 받았습니다.
-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직접 경제효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자체성과 평가지침에 따라 축제 방문객들의 직접경제효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 총 지출액은 약 16억 5천만원, 외지 방문객 총 지출액은 약 90억 5천만원으로 산출되어 총 직접 경제효과는 약 107억원 으로 조사·분석 되었습니다.

[표 6-3]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직접 경제효과 분석 결과

구분	방문객수 (단위 : 명)	1인당 평균 지출비용 (단위 : 원)	합계 (단위 : 원)
영암군 지역주민	30,122	54,980	1,656,107,560
외지 방문객	133,584	67,760	9,051,651,840
직접 경제효과	지역주민 방문객 총 지출액 + 외지 방문객 총 지출액		10,707,759,400
	외지 방문객 순지출액		8,226,797,880
	지역주민 방문객 총지출액		1,656,107,560

○ 반딧불이축제 : 3천만원

- 영암군은 왕인박사유적지의 4계절 활용을 목표로 “반딧불이축제,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 해 처음 선보인 반딧불이 축제는 영암곤충박물관과 함께 추진한 행사로 영암군이 2천만원을 보조하고 영암곤충박물관이 6백만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 새롭게 시도한 행사로서 유료 모객에도 불구하고, 2만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해주었고, 영암왕인박사유적지가 반딧불이 자생지임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야간 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 또한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 직·간접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행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 관광의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 만족도 조사결과 97.3% 만족, 내년 축제 92.8% 재방문 의사

아울러, 구림마을과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야간관광활성화사업’ (도비 1억 확보)을 하반기에 야간 축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달빛문화축제 : 1억 2천만원

-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마을축제 정착을 위해 2023년 영암읍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2024년 3월 삼호읍, 6월 학산면 등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 삼호읍에서 개최한 달빛축제는 군비 28백만원, 도비 5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3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군이 출시한 전통막걸리 ' 문득 “ 시음 및 판매행사, 군 공식 굿즈 판매, 우리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플리마켓, 주변 상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 학산면 낙낙한 달빛축제는 농번기를 마무리한 학산면 인근, 삼호, 미암, 서호, 군서 주민, 그리고 미암 서울농장 체험을 위해 방문한 외지인 등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낙지의 고장 학산면을 홍보하기 위해 낙지빵 ” 낙지지롱” 을 첫 출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로 2023 대한민국 밤밤곳곳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문화축제 : 5천만원

- 왕인박사유적지 사계절 활성화를 통해 1년 내내 관광객이 이어지도록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반려인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축제로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 상대포 경관조명설치사업 : 30억원

- 군 역사의 현장인 상대포구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문화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야간 불거리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시설비로 축제예산이 아닙니다.

○ 월출산 국화축제 : 15억 9천만원(관광스포츠과 600, 기술센터 990)

- 1억 송이 국화 전시 및 다양한 문화공연 등 사계절 관람객이 끊이지 않도록 매년 10월~11월 개최하는 가을철 대표 관광프로그램입니다. 작년 28만명이 우리 영암을 찾았습니다.

○ 영암군에서 2024년 새롭게 추진한 축제는 달빛축제, 반딧불이축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총 3건에 2억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1997년 시작으로 올해 23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국화축제는 2007년부터 14회째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붙임 6

2023년 결산기준 영암군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최종 결산 잔여금(세입-세출)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1회계연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상반기 최종 결산 진행 : 법적사항)

정부 지침에 따라 영암군은 202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 따라 2024년 세출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역대 유례없는 정부 긴축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붙임 7 영암군 보조금 혁신 방향

- 전문기관의 보조금 분석을 바탕으로 일몰, 감소, 통폐합을 진행했습니다.
 -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영암군 예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없어질 보조금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보조금은 줄였습니다. 중복된 보조금은 통폐합했습니다. 영암군민의 착오가 없도록, 이런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거듭 설명했습니다.
- 앞으로의 지역의 가치에 투자하고 지역사회의 지혜가 모이는 협치로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미래, 평범, 협치를 키워드로 낙후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특권층과 일부 단체의 독식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영암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혁신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영암군은 이런 협치를 촉진하는 지원으로 보조금

혁신을 이어가려 합니다. 영암농업도 영암경제도 민주적 방식인 협치로 전국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원

- 지지하고 도움을 줌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 또는 개인에 교부하는 돈
- 혜택과 수혜, 권리화
- 지역역량 지체 하향



[가치]투자

-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음
- 사람이 남고, 지역의 가치가 창출됨
- 함께 만들어 가는 일
- 천천히 쌓이고 성장